

보도시점 2026. 2. 24.(화) 16:00 (2026. 2. 25.(수) 조간)

고용노동부, 한국경총과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발족

- 한국노총·민주노총에 이어, 경영계와도 정례 소통 체계 완성
- 노동계·경영계와 균형감 있는 현장 소통을 통해 정책 완성도 높일 것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24일(화) 16: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한국경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경정협의체)를 발족하였다.

경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경영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정례 실무협의체 및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발족에 이어, 한국경총과도 협의체를 발족하여, 노동계·경영계를 아우르는 소통 체계를 완성하였다.

*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한국노총 (2.9. 발족) ▲민주노총(2.11. 발족)

한국경총 경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한국경총 전무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 및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경정 간 진솔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청년 고용 상황 악화, AI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힘든 비효율적 규제”를 들며, “근로시간 유연 개선,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하는 공정한 보상 체계로 전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관계 균형 회복 등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하고,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협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신뢰의 장’이 되길 바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전환, 인구구조, 글로벌 질서 재편, 최근 퍼지컬 인공지능(AI) 상황 등 복잡한 난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길은 중층적이고 다각적인 대화”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최근 양대 노총에 이어 경영계와 협의를 개최하며 노사정 대화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중층적 대화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일 때 우리는 서로 소통하며 쌓인 신뢰를 토대로 견고한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한국경총-고용노동부 경정 운영협의체 개요
2. 고용노동부 차관 모두말씀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노동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부용 (044-202-7740)
		담당자	사무관	박보경 (044-202-7746)



붙임 1**한국경총-고용노동부 운영협의체 1차 개요**

□ **일 시:** '26. 2. 24.(화) 16:00

□ **장 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웰컴룸)

□ **참석자**

○ (한국경총) 부회장, 전무, 상무, 노동정책본부장 등

○ (고용노동부) 차관, 노동정책실장, 노동정책관, 노동정책총괄과장,
근로기준정책과장, 노사관계지원과장 등

□ **세부일정(안)**

※ 기념촬영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02	2'	▶ 참석자 소개	
16:02~16:10	8'	▶ 모두말씀	- 한국경총 부회장 - 고용노동부 차관
16:10~16:13	3'	▶ 기념촬영	- 참석자 전원
16:13~17:00	47'	▶ 안건논의	- 경정협의체 추진계획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입니다.
- 바쁘신 일정 중에도 노동정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한국경총 이동근 부회장님, 류기정 전무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지난 50여 년간 한국경총이 경영계를 대표해 우리나라 노동관련 법과 제도·관행 발전에 힘써 오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산업전환, 인구구조, 글로벌 질서 재편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피지컬 AI 상황을 보면 변화의 폭과 속도는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대화해야 합니다.
 -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유일한 길은 결국 머리를 맞대는 증층적이고 다각적인 대화뿐이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최근 양대 노총과 협의체를 가동한 데 이어, 오늘 경영계와의 정례협의체를 개최하며 노사정 대화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 그동안 흩어져 있던 대화의 조각들이 이제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층적 대화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일 때 우리는 서로 소통하며 쌓인 신뢰를 토대로 견고한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노동정책의 핵심인 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일자리 창출 모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 오늘 발족한 이 협의체는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정부는 기업 현장의 애로와 우려를 경청하고, 정책 추진 배경과 방향을 사전 공유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수용성 높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